

5·18 부상자·공로자회 '정율성 공원' 반대 표명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혁명 3개 단체와 반대 광고에 이름 올려 보훈부 비공개 만남 이후...유족회는 소모적 이념 논쟁 우려 불참

5·18 공법 3단체 중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공개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단체인 5·18 유족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며 입장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8일 4·19혁명 관련 3개 단체와 함께 3개 중앙 일간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광고를 실었다.

두 공법단체는 광고를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4·19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우롱하는 처사"라며 "조선 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 주장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고를 내기 전 이사회를 거치는 등 별도의 회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은 "광주시는 5·18 공법단체들의 사무실을 확장·개편해 달라는 요청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해 왔는데, 정작 논란이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수십억 예산을 들여가며 서두르고 있다"며 "광주시가 논란에 휩싸인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5·18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늘리라는 취지에서 동참했다"고 광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이사회 논의 결과 '이념 논쟁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며 공개 의견

표명에 불참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지금 시대에 해묵은 이념 논쟁 끌어올려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이념 잣대를 들이밀어 취소 여부를 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공개 의견 표명은 국가보훈부 관계자와 만남 이후에 이뤄졌다.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8시에 광주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국가보훈부 직원 3명과 비공개 모임을 했다.

국가보훈부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에게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 등 정부의 뜻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은 "이미 5·18공법단

체를 제외한 전국 14개 보훈공법단체가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만남이 이뤄졌다"며 "공법단체 내부 의견과 무관하게, 공법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든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터라 국가보훈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진행하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5·18 가해자인 특전사 단체가 별다른 사죄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5·18공법단체가 대뜸 특전사동지회와 손을 잡고 '용서와 화해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 5·18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을 두고 부상자회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하게 되자 두 단체는 광주시장과 갈등을 빚고 광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번주 오락가락 비 30일 이후 '가을장마'

'가을장마'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당분간 비소식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0일 이후 시베리아 저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형성돼 가을장마로 인한 비가 3~4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예보했다.

30일까지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다 30일 이후 확장된 저기압이 덮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 한반도에 장마전선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을장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을장마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8월 말-10월)에 장마전선 때문에 계속되는 비를 말한다.

기상청은 아직 '가을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9월 2~3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30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에 50~120mm의 비가 내리고,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최대 1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관계자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가을장마'를 언급하지는 않는다"며 "태풍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강수는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에 팜 북북서쪽 570km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이쿠이의 중심기압은 998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18%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율성 공원 반대 집회서

5·18왜곡·편향 전단지 배포

5·18재단, 보수정당 고발

5·18기념재단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집회에서 5·18왜곡·편향 전단지를 배포한 보수정당과 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재단은 28일 자유통합당 광주시장·전남도당 관계자들을 5·18왜곡·편향 위반 혐의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자유통합당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했다.

전단지에는 '세계 최고 정보기관 미국 CIA비밀 보고서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며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당시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 주장이 실렸다.

이들은 또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해 폭동이 발생했다'는 등 내용의 손맛을 현장에서 배부하기도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과 무관한 사안에서조차 5·18 왜곡·편향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5·18왜곡·편향 위반으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목격하면 5·18왜곡과 편향을 뿌리뽑기는 요원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정당 활동을 했다는 등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절약 함께해요" 광주시 동구 지원1동 주민자치회원들이 28일 동구문화센터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교육청 서이초 교사 49재 날 추모행사

李 교육감 "교권 회복 적극 동참"

광주교육청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

은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부당한 민원과 교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권과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혼자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아이들을 위해 부담함을 참아내면서 힘들어

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힘쓰겠다"면서 "가르침의 가치가 살아나고, 광주 정신을 가슴에 품은 따뜻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당부했다.

추모 행사는 일과 시간 이후인 오후 5시30분 열리며 교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다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나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연재 영산강환경청장 취임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박연재(54·사진) 제 33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8일 취임했다.

박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정착, 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협업과 통합관리로 건강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물 수요 관리 강화와 탄소중립 사업 지원·확대, 환경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레 출신인 박 청장은 기술고시 29회로 서울시립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대변인, 원주지방환경청장, 자연보전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대인 기자 kdi@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